

호스피스 사례 보고서

-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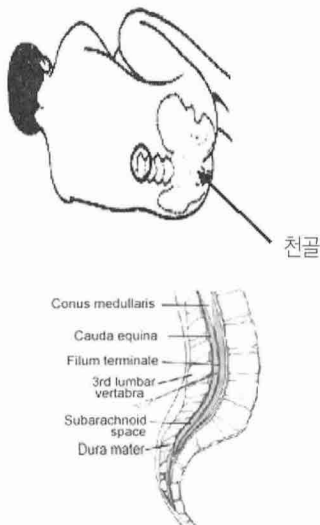
의사

1. 환자 정보

HOO(여자/52세)은 직장암 4기 (골 전이) 환자로 2003년 9월 통증조절을 위해 본원 호스피스병동에 입원 음.

2. 진단과 관련된 과거력

- '95년도 타 병원에서 직장암으로 진단 받고 전방 절제술과 골반 림프절광청술(T3N2M1)을 시행함.
- '96년 1월~ 3월동안 방사선 치료를 받고 항암화학요법(LF) 6회 받음.
- '01년 4월 골반 MRI상 골 전이가 확인되어 골반 방사선 치료받음.
- '02년 4월 통증조절 위해 경막외 신경차단술 시행.



■ 첫 번째 입원(03년 9월4일~ 10월1일)

▶ 주 호소

좌측하지/ 둔부 통증과 복부 팽만, 압통.

▶ 검사시행

- 흉부 X-ray상 좌측 흉수와 복부 X-ray에 복수 확인됨.
- 골반 MRI상 천골, 미골, 장골에 다발성 골 전이와 좌측 장골외에 종괴 보임.
- 골 전이된 덩어리가 요추5번 레벨에서 경막 밖으로 확장되어 천골와, 소공을 폐쇄하고 있는 모습임.

▶ 평가

직장암, 다발성 골 전이, 척추 전이에 의한 신경병성 통증.

▶ 치료

- 지속형 주입주사(Morphine 270mg + Ketamin 800mg + Bupivacine30mg)
- 경구로 소염제, 항경련제, 항우울제 병용 투약함
Nafroxen1000mg #2,
Gabapentin 1200mg #3,
Bacropen 30mg #3,
Amitriptylline25mg #1

▶ 반응

VAS 6(입원시) → VAS 5(입원7일째) → VAS 2~3(퇴원)

(Morphine 1800mg + Ketamin 1000mgIV)
경구투약(Mexitil 600mg, Gabapentin 1800mg, Amitriptylline25mg, Tridol 300mg, Naxen 1000mg)

■ 두 번째 입원 (03년 10월 24일~04년 9월)

04년 2월 통증 점차 감소하여 지속성 정맥주사와 경구투약을 감량 조절함.

▶ 주 호소

항문부 통증, 둔부 타는 듯한 통증, 감각 저하(L5~ S3 dermatome of buttock).

Morphine 250mg+Ketamin 1000mg
Mexitil 600mg, Gabapentin 1800mg, Amitriptylline25mg, Tridol 300mg, Naxen 1000mg

▶ 평가

직장암, 다발성 골 전이, 척추 전이에 의한 신경병성 통증 악화.

▶ 반응

VAS 7~8(입원시) → 6~7(선택적 척추 신경 차단술 직후) → 3~4(시술 2달후)

▶ 치료

- 03년 11월 신경외과에서 척수 조영술과 신경 차단술(L2,left)시행했으나 통증 호전없음.
- 03년 11월 신경외과에서 선택적 척추신경 절제술(S2,3,4,5)시행후 즉각적 통증 호전 없음.
- 03년 12월 통증 조절 위해 지속성 정맥주사

2004년 9월 8일 발열과 호흡곤란 지속되며 우상엽 폐렴(흡인성 폐렴의심)으로 수액과 항생제 치료하였으나 악화되어 3일 후 임종함.



간호사

1. 환자 정보

본 환자는 52세 여자 환자로 95년 직장암 진단 받고 수술, 방사선 치료 및 항암 화학요법을 받고 지냈으나 병이 진행되어 01년 말기선고를 받고 골전이까지 되어 통증이 지속된 분으로, 통증 조절 위해 신경차단술까지 받았으나 통증 완화되지 않아 2004년 9월 14일 둔부의 작열감과 신경병성 통증을 주 호소로 본원 호스피스 병동으로 입원하게 됨.

의식 상태는 명료하였고 식사도 잘하였으나 입원 당시부터 둔부의 통증으로 prone position으로 24시간 생활하며 지냈기 때문에 통증을 조절하여 반듯하게 누워있을 수 있도록 도와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 주고, 자신의 상태에 대한 수용과 희망을 가지며 지내도록 하는 것을 호스피스 팀의 목표로 삼음.

2. 간호진단과 증재, 평가

1) 간호진단 #1

조절되지 않는 통증과 관련된 불안

통증조절 위해 신경외과에서 선택적 척추신경절단술을 받고 supine position은 취했으나 항문주위와 왼쪽 다리의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여 물핀과 보조 진통제의 요구량이 많아지고 line을 잡아 뺐다거나 침대 난간을 두드리며 혼돈과 망상 확인되고 제대로 수면 취하지 못하는 모습 관찰됨.

“아파! 아파! 조금만 있으면 소리 지를 것 같아요.”

“왼쪽 다리가 아파요.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온몸이 찢겨 나가는 거 같아요.”

“아픈데... 주사 줘요. 내가 아픈데 아무도 당황하지도 않아. 옆에서 있을까봐!”

▶ 증재

① 개방적 태도로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수용하

고 통증 확인 시 즉각적인 처치를 시행함.

② 통증조절을 위해 물핀과 보조제(안정제, 항경련제, 스테로이드, 항우울제)를 병용하고 온냉요법, 마사지, 체위변경, 이완술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함.

③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자주 함께 하며 적당한 접촉을 함.

④ 불안의 원인을 파악하고 일어날 일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해 주고 주위 환경의 자극을 감소시키고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격려함.

⑤ aromatherapy를 적용하여 안정감을 유도함 (lavender, clary sage, ylang ylang 등).

▶ 평가

심한 통증과 불안에 대한 환자의 호소를 수용하고 이에 따른 약물조절과 지지를 통해 NS op. 20일 경과후 1일 모르핀의 사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고 통증 조절이 됨. supine position유지하며 불안정한 모습도 줄어 수면제량도 감소하고 밤에 잘 잠. 본인의 감정 및 의견도 잘 표현하여 현 상황을 받아들이는 모습 보이며 적절한 기대와 희망도 내비침.

2) 간호진단 #2

조직관류의 변화로 인한 림프부종

95년 rectal Ca. 진단 후 salpingoophorectomy 시행하고 방사선 치료 받고 장기간 침상생활함.

04년 1월 15일 당시 both leg edema ++ 확인함.

“다리가 무겁고 아파요.”

“부어서 발목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 증재

① 환자의 병력과 임상증상을 통해 림프부종을 진단(1기→2기)하고 감염과 피부손상을 피하고 피부를 잘 유지함.

② 림프마사지를 매일 시행(3/15~3/31)하고 저 탄력 치료용 압박붕대를 적용함.

▶ 평가

림프마사지와 압박붕대 적용 4일 뒤부터 다리의 무거움과 통증이 줄어들고 부종도 현저히 감소함. 이후 약 2개월 가량 잘 지내다가 상태 저하되고 답답해하면서 치료 지속하지 못함.

3) 간호진단 #3

병의 진행으로 인한 불확실한 미래와 관련 된 심리적 변화 : 우울/불안

3월 말 같은 병실 환자의 임종을 알고 울적해 하며 계속 수면제에 의존해서 잠.

4월 말부터 외관상 황달 진행되고 N/V심해져 불안해 함.

5월 전신상태 저하되면서 새로운 증상이 시작됨 (Rt.leg pain, rectovaginal fistula, perineal eczema, dyspnea).

“왜 그냥 눈물이 나는 걸까요?”

“눈 감고 자면 영영 못 일어날 거 같아요.”

“뭔가 모르게 답답하고 안정이 안되요.”

▶ 중재

환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지지함.

기분 전환의 기회를 제공함(산책, 옥외요법등).

영적지지를 통한 충만감과 현실인식을 도움(아들의 관면혼배 참석, 가톨릭 전례 참석등).

아로마테라피 적용함.

▶ 평가

가족 특히 남편의 방문과 태어날 손주에 대한 이야기로 밝은 모습 보였고 편안해 함.

처음에는 변화되는 자신의 모습과 상태에 많은 불안과 우울을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사람들을 배려하고 타인을 위해 기도하며 겸허하게 현실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04년 9월11일 임종함.

흔들리며 피는 꽃

- 도종환 -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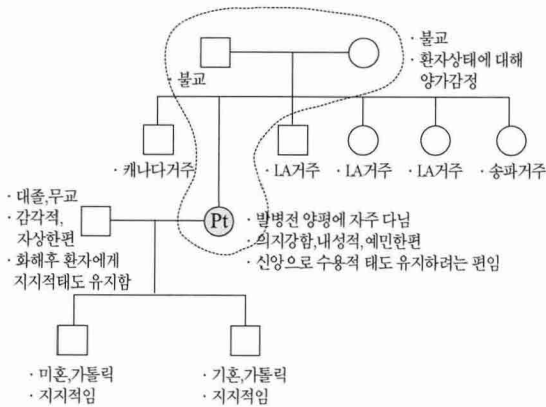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사회사업가

1. 일반적 사항

- (1) 성별/연령 : 여/52
- (2) 학력 : 대졸
- (3) 종교 : 가톨릭
- (4) 주거형태 : 아파트(父명의)
- (5) 경제상태 : 中上 (진료비 부담 : 부모의 임대 수입 등 가족이 지원)
- (6) 사회보험 : 無
- (7) 장례준비 : 본당 통해 예절 지키고 선산에 매장 예정.

2. 가족구성도



3. 문제사정

- (1) 환자의 심리적 어려움 및 감정 표출 유도하며 정서적 지지 필요.
- (2) 장기입원에 따른 무료함 완화 필요.
- (3) 가족과의 관계유지 및 강화시키고, 임종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 유지하며 준비하도록 심리적 지지 필요.

4. 개입

- (1) 지속적인 병실 방문 통해 환자의 표현에 경

청하며 지지하였고, 즐거웠던 일들을 회상하며 긍정적으로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상담함.

- (2) 병실에서 음악요법(10회) 실시하도록 음악치료사 연계하여 무료함 완화시킴.
- (3) 가족(환자, 남편, 아들) 소풍 계획하여 환자가 자주 다니던 양평 다녀오고, 병동 소풍(국립현대미술관) 참여 유도하여 아들, 며느리와 함께 국립 현대미술관에 산책 다녀오으로써 관계 지지하였고, 사진 제공하여 의미있는 시간에 대해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함.

5. 평가

본 case는 직장암 진단 받고 03.10.1(재입원)~04.9.11.까지 장기 입원하여 hospice care를 받은 52세 여환자와 가족의 심리 사회적 어려움에 대해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병실을 방문하여 환자에게 심리적 지지 및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음악요법을 실시하여 병실생활의 무료함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지적 가족관계 유지 및 강화를 위해 소풍 등의 이벤트 기획과 지원 연계하여, 가족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지하여 환자와 가족들에게 의미있는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환자는 자녀들의 영세, 소풍, 아들의 결혼, 자신의 생일, 손자 출생 등을 기다리면서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신앙으로 자신의 상태를 의지하며 수용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 보였고, 환자와 가족들은 환자의 여러 차례의 상태악화 및 변화를 겪으면서 임종을 수용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원목자

1. 방문 계기

호스피스병동 원목자로 바뀌면서 정기적으로 호스피스 병동을 방문하여 환자에 대한 병력과 호스피스 팀원들이 알아야 할 환자의 인생 여정을 확인하기 위함임.

2. 사목준비

환자를 방문하기 전에 성체 조배와 기도를 통해 마음의 준비를 했고 병실에 들어가서 인사를 나누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반응을 보여 주었으며, 자유와 평화 안에서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삶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엮어가도록 돕는 것을 방문 목적으로 삼음.

3. 환자와 사목자 간의 만남에 대한 분석

◆ 환자가 힘들어했던 문제와 “사목적 진단”

- 1) 육신의 고통
- 2) 마음의 고통
- 3) 본인이 실험 대상이 아닌가 하는 의심

◆ 환자에게 현재의 병실 생활이 인생에 있어서 갖는 의미

- 1) 영적 성장과 성숙의 기회
- 2) 삶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 3) 삶의 정리와 새로운 준비의 시기

4. 사목적 분석

◆ 방문 시간의 적절성

1시간 정도는 환자가 부담을 가지므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주로 20~30분 면담하기로 함.

◆ 방문 단계에 따른 변화와 전환

- 초기단계: 일반적인 방문으로 대화를 통한 관계형성에 중점을 두고 봉성체를 위해 방문함.
- 중간단계: 자신이 살아온 삶과 사랑의 모습을 열어서 보여 주었고, 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의식을 엿볼 수 있었음. 남편과 화해하고 재회를 함.
- 마지막 단계: 자신의 상태를 수용하고 겸허해짐, 임종.

5. 신학적 성찰

◆ 창세기 32,26-27

그 분은 동이 밝아 오니 이제 그만 놓으라고 했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복을 빌어 주지 않으면 놓아드릴 수 없다고 떼를 썼다.

◆ 루가 7,13-15

주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울지 말라” 하고 위로하시며 앞으로 다가서서 상여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다. 그 때 예수께서 “젊은이여, 일어나라”하고 명령하셨다. 그랬더니 죽었던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 앉으며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 주셨다.

봉사자

2003년 9월 4일 병실에 들어서니 병상에 건강해 보이는 분이 환의를 입고 엎드려 무언가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참 예쁘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간병인이 옆에서 아주 어려워하면서 시중을 들고 있었기에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아는 체도 하지 않고 귀찮은 듯, 못 본 체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병실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9월 말 퇴원을 해서 다른 병원으로 갔습니다.

10월 말, 한 달 만에 환자가 다시 입원해서 방문했더니 그때 아주 반가이 맞아주며 그 동안 있었던 일을 말하며 이곳에 입원해 있을 때가 너무 좋았으며 다시는 다른 병원으로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도와 성가를 무척이나 좋아한다면서 부탁하고, 종교를 갖게 된 사연과 남편과의 사랑, 결혼, 아이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남편을 무척이나 사랑하며 병실을 찾아주기를 바라며, 아들이 교리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엉덩이뼈와 허리에 통증이 심하고 이상이 있어 눕지 못하고 하루 24시간 온종일 엎드려 있어야 하는 고통에 모든 사람에게 신경질적이라고 짜증스럽게 표현하며 이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누울 수 없어 항상 엎드려 있어야 하는 고통과 통증 때문에 교수님은 수술을 권했고 완쾌의 희망으로 수술에 임하는 그 분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는 똑바로 누워있을 수 있어서 환자가 얼마나 행복해 했는지.... 그러나 수술 후 통증 때문에 점점 더 힘들어하고, 완쾌되리라 믿었는데 더 나빠지는게 아닌가 하며 불안해했고, 많이 먹고 빨리 좋아져야 한다며 음식에 대한 욕심을 부렸고, 완쾌에 대한 불확신 때문에 환자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세례를 받을 즈음 남편과 화해를 했고 며

칠에 한 번씩 남편이 왔으며 그 때마다 환자는 어린 아이처럼 얼굴을 붉히고 좋아했습니다.

12월에 성당에서 두 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환자는 너무 힘들어서 영세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친척분과 봉사자가 참석하여 축하해주었습니다. 아들은 영세식이 끝난 후 곧바로 병실에 계신 어머니께로 달려왔고 어머니는 행복감에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저희는 기도와 성가로 축하를 해드리고 같이 기뻐했습니다. 환자가 마음의 평화를 찾으면서 병세는 호전되는 것 같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환자는 너무나 많이 변하였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행복해 했으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하루하루를 너무나 값지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교대로 병실을 지키며 남편은 매일 방문했습니다. 친정식구들은 누워만 있어도 좋으니 오래만 살아달라시면서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2월 어느 날, 건강했을 때 자주 가서 그림을 그려던 곳에 가보고 싶음을 가슴으로 여러 사람에게 전하였습니다. 모두 다 망설였습니다. 상태가 중하고 날씨도 춥고 환자가 전혀 몸을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외출할 수 있는 묘안을 짜보았습니다.

결국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구급차와 승용차로 팔당에 있는 정약용 생가로 향했습니다. 환자는 모 처럼의 외출에서 남편과 그 동안의 모든 응어리를 푸는 듯 하였고, 남편도 아주 다정스레 손을 잡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환자는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고 모든 면에 긍정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며 병실의 새 환자를 맞이할 때면 먼저 양보하고 배려를 하여 병실 분위기는 가족이 함께 사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꽃이 피는 4월이 되었고 대지는 너무나 아름답게 변해 갔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면서 이번엔 모든 병동식구와 같이 장애인버스와 구급차를 이용해 국립현대미술관으로 꽃구경을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날씨는 너무나 화창했고 모두 어린아이들처럼 즐거워했습니다. 우리의 외출을 축하라도 하듯 햇벌이 짹짹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었고 모두 하늘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환자의 병세는 악화되어 갔지만 마음은 더욱 아름다워져 갔습니다.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서 삶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이며, 내년 초에 건강한 모습으로 큰 아들 결혼도 시키겠다고 말하며 결혼할 아들 혼배성사를 걱정했습니다. 도움이 되고자 수녀님과 상의했습니다. 수녀님은 신부님과 의논하셔서 병동에서 관면혼배를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준비에 부산을 떨고 한복을 입히고 화장을 해드리고, 병동의 모든 식구들의 축하 속에 관면혼배는 아름답게 진행되고 모두 다 소리 없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옥상에서 기른 상추로 점심을 먹으면서 여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생일을 어떻게 맞이할까에 부풀어 상기된 표정으로 저희와 의논하였고, 가장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 고민하던 중 가장 친한 친구의 방문에 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듯, 생일파티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하루 하루가 이다지도 중요하고 소중한데 형식적인 생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조용히 생일을 맞이하겠노라 하였습니다.

며칠 후 병실에 들어가니 기다렸다는 듯이 손가락을 펴 보였습니다. 손가락에 예쁘게 끼워져 있던 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 보니 '욕심이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부끄

러운 생각이 들어서 손가락에 있는 반지며 목주팔찌며 모든 것을 빼서 서랍 속 깊이 넣어 버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니 너무나 마음이 평온하고 평화롭다고 하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요즘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보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태어날 손주를 위해 기도하고 남은 식구들의 평안한 삶을 위해 기도하며 지낸다며 지금까지 받은 모든 사랑을 저 세상에선 이자까지 계산해서 꼭 돌려 갚겠다고 손을 꼭 잡으며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가장 소중하고 의미있는 인연은 하느님과의 만남이었다고 하며 하느님과 깊은 관계에 만족해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태어날 손주를 보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하며 눈을 돌려 창 밖을 보셨습니다.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의식을 놓은 적이 없었고 그 오랜 병고에도 전혀 흐트러짐이 없는 정신력에 저희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가을을 가장 좋아한다며 가을 나들이를 생각할 즈음 병세는 악화되어 병동에 입원한지 1년을 몇 일 넘긴 2004년 9월 중순 환자분은 긴긴 잠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두 아들이 영세를 받은 본당으로 시신은 옮겨지고, 우리에게 사랑과 화해와 비움을 진정으로 가르쳐주었던 맑은 영혼은 하느님의 품으로 떠났습니다.

추석 무렵 씩씩하고 우렁찬 손주 녀석이 세상의 아름다운 빛을 보았습니다.